

 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2017.3.6.(월) 배포시	배포	2017.3.6(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6)		담 당 자	박 보 라 사무관 (02-2100-2668)	

제 목 : 서울신문(17.3.6일자) “소문난 잔치, 먹을건 없었다... 손님 떠나는 ISA” 제하의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 ☐ 서울신문은 2017.3.6.(월) “소문난 잔치, 먹을건 없었다... 손님 떠나는 ISA” 제하의 기사에서,
- “‘ISA다모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ISA 순(純)가입자 수는 236만 1,712명으로 전달에 비해 2만 9,076명 줄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한 사람보다 중도해지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1만 5,075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가입자가 순감했다. 가입금액도 908억 늘어나는데 그쳐 2개월째 1,000억원을 밑돌았다.”고 보도

< 사실 관계 >

- ☐ ISA 가입동향과 관련하여 납입잔고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 ‘16.12월말 대비 ‘17.1월말 현재, 납입금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가입자수는 1.2만명 증가하였으며,

- 1만원 이하, 1만원 ~ 10만원 이하의 소액 가입자수가 각각 1.3만명, 2.7만명 감소하여 최근의 가입자수 감소는 주로 소액 계좌 정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 특히, 총가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6.12월말) 3조 4,116억 → (‘17.1월말) 3조 5,024억원 → (‘17.2월말) 잠정 3조 6,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1인당 평균 가입금액도 ISA 도입 초기 (‘16.3월말) 55만원에서 → (‘17.1월말) 148만원으로 2.7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중
- ➡ 따라서, 총 가입자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소액계좌 감소, 총가입금액 증가, 평균가입금액 상승 등 ISA 계좌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납입잔고별 가입 현황(만좌, %)>

구분	‘16.11월말			‘16.12월말			‘17.1월말			증감 (B-A)
	은행	증권	소계	은행	증권	소계 (A)	은행	증권	소계 (B)	
1만원 이하	118.1 (54.0)	7.9 (36.7)	126.1 (52.4)	116.6 (53.5)	7.8 (37.4)	124.5 (52.1)	115.3 (53.5)	7.8 (38.2)	123.2 (52.2)	△1.3
1만원초과~10만원이하	46.9 (21.4)	5.8 (26.7)	52.7 (21.9)	46.7 (21.4)	5.5 (26.3)	52.2 (21.9)	44.3 (20.5)	5.3 (25.7)	49.5 (21.0)	△2.7
10만원초과~1천만원이하	44.3 (20.3)	5.2 (23.8)	49.5 (20.6)	44.8 (20.6)	4.9 (23.1)	49.7 (20.8)	46.0 (21.3)	4.6 (22.6)	50.6 (21.4)	0.9
1천만원초과	9.5 (4.3)	2.8 (12.8)	12.3 (5.1)	9.8 (4.5)	2.8 (13.2)	12.6 (5.3)	10.1 (4.7)	2.8 (13.6)	12.9 (5.4)	0.3
합 계	218.8	21.6	240.6	218.0	21.0	239.1	215.6	20.4	236.2	△2.9

- ※ 최근 ISA 가입동향 관련 분석자료를 ‘17.3.10일(금) 배포(3.13일(월) 조간 보도)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